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8호 [루체 제23445호] 주제 100 (2011)년 5월 8일 (일요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領導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태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조선로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책임비서 홍인범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화학공업상 리무영동지,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 지배인 조경철동지,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전경선동지를 비롯한 중앙파도,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정애하는 장군님을 1개월만에 또다시 맞이한 대화학공업기지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지난해 4월 가스화 1계렬공정건설을 끝냄으로써 비료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놓은 남홍의 로동계급은 화학공업의 자립성,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즐거운 투쟁을 벌려 지난 1년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지난해 6월 현지지도 이후 자체의 힘과 기술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스화 2계렬공정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지난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오던 나프사에 의한 비료생산체계에 종지부를 찍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가스화 1, 2계렬공정건설이 성과적으로 끝난 결과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철두철미 우리 나라에 혼란 무연한을 가지고 비료를 다양생산해내는 기업소로 확고히 전변되었으며 나프사를 가지고 비료를 생산할 때보다 생산원가를 크게 줄이면서도 생산량을 2배로 높일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료종합조작실, 비료출하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건과 함께 기술로 가스화 2계렬공정건설을 단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낸것은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현신성을 발휘하여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운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남홍 가스화 1, 2계렬공정건설의 성과적 완공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화학공업건설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당파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로동계급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남홍 가스화 대상이 완공됨으로써 비료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비료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기쁨을 금지 못하시였다.

당의 결정지시라면 그 어떤 어려운 곤경도 무조건 판절하는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가지고 있는 남홍로동계급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에 의하여 가스화대상이 홀륭히 완공되어 주체비료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혁명의 년대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빛내여온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이 낳은 위대한 발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가스화대상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혁명적

이며 전투적인 로동계급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당이 강하고 사회주의조국이 승승장구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축사, 기초식품직장, 청춘원을 돌아보시면서 기업소의 후방사업정형과 로동자들의 문화정서 생활을 구체적으로 묘해 하시였다.

기업소에서 축사를 잘 꾸리고 사료보장 및 위생방역체계를 철저히 세워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돼지, 오리, 게사니, 칠면조를 비롯한 집집승들을 대대적으로 길러 많은 고기를 생산하고있을뿐아니라 된장, 간장, 두부, 우유를 비롯한 기초식품들을 질적으로 생산하여 로동자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있는데 대해서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기업소의 일이 잘되고 있는 것은 든든한 후방사업의 안락함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생산의 주인인 로동자들에게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후방사업

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이악하게 노력하고있는 기업소의 당 및 행정일군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현대적으로 건설한 청춘원에서 진행되는 배구경기와 수영을 보아주시면서 로동자들이 충분한 문화휴식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기업소에서 건설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들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만큼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들인 로동자들의 생활에 선차적인 관심을 둘리는 기업소일군들의 혁명적 군중관점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기업소에서 생산하는 각종 인민소비품들을 보아주시면서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이런 제품들을 더 많이, 더 질좋게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지

니고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기업소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성과적으로 완공된 가스화공정에 대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협동조합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의 필수적요소의 하나인 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가스화공정을 비롯한 전반적생산공정을 최신과학기술의 토대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최첨단돌파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내각을 비롯한 현관부처들에서 남홍가스화공정을 만부하로 돌리는데 필요한 전기와 석탄을 비롯한 원료와 자재들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주어야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기업소앞에 나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업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당면하여 PPP유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활기있게 전진해야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원료와 자재를 대출수 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공장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출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전국의 로동계급은 지금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고있다고 하시면서 남홍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시대의 벅찬 흐름에 발맞추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나아갈 길을 훠황히 밟혀주시고 새로운 위훈에로 따뜻이 손잡아이끌어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에 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선참으로 올라설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깨 서 남 흥 청년 화학 련합 기업 소를 현지 지도 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남 흥 청년 화 학 련 합 기업 소를 현지 지도 하시 였다



인덕으로 천하를 얻으신 위대한 분

여러 나라 정당, 정부 성, 단체, 기관들과 각계 인사들이

우리 나라 대표부에 꽂바구니를 보내여왔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웨남남포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 국방성, 외무성, 공안성, 산업성, 문화체육 및 판교성,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호지명공산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농민동맹, 중앙위원회, 년전신문사, 교단북부국무, 호지명박물관, 비엘그룹, 탕통총회사, 웨남조선친선구부, 이란국방 및 무력평생성, 민족청년조직, 『로동자의 집』, 국제태련도협회, 이란조선친선의원단, 캄보자인민당, 페스케크당, 상원, 국회, 외무 및 국제협조성, 국방성, 공보성,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인디아공산당(페스주의), 중앙위원회, 라오스조선친선협회, 영국공산당(페스주의), 중앙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김일성주석회고 메히코친우협회, 주체사상연구 메히코친우협회, 조선통일지도 메히코친우협회, 메히코조선친선협회와 라오스정부 부수상 경 국방성,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인민혁명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안전보위성 사무장, 수리아부대통령들, 아랍사회부총무부총비서와 지역부총비서, 지역지도부 조직부장, 민족진보전선 부위원장, 외무상, 국방성, 동조합총련맹 위원장, 농민총동맹 위원장, 이런 이슬람교령 무자간기 위원장, 캄보자 국왕개인고문단 단장, 수상고문, 만마련맹현대성발전당 서기장, 중국 홍콩 암페리그룹 회장, 기네인민련합 총서기, 리마시 쌈 이씨드로구역 장관, 메히코친선친선의원단 위원장 등 여타 나라의 정당, 정부 성, 단체, 기관들과 각계 인사들이 4월 2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체 사회당, 사회주의인민당, 사회당, 보내여왔다.

태양절 기념 행사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네랄, 에티오피아, 트리니티도 토바고에서는 업적 토론회,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기내에서는 음악회, 미술전시회가 4월 10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전, 미술작품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들은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세계가 공인하는 가장 걸출한 위인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 높이 칭송

우리 나라를 방문한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 자베드 암살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환호심을 표시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민민의 행복,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다.

그이는 선조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자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다.

진보적인들은 그이를 세계가 공인하는 가장 걸출한 위인으로 열렬히 칭송하고 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 주시였다.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을 일제의 지배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립, 자위의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셨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의 위업을 이어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고 계신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핵세력이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려고 암살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조선인민은 끄떡없이 반제자주위업과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밀고나가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인터넷에 특집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방글라데슈, 브라질의 단체, 기관, 정당이 인터넷홈페이지에 톤집하였다.

로씨야공산주의 청년동맹은 지난 4월 8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인민적수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초기에 벌써 혁명과 건설을 주도하는 힘을 인정해 주신다는 내용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도하는 힘을 인정해 주신다는 내용이다.

글은 김일성주석의 인간사랑의 세계는 국가를 초월하였다. 그이를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태양으로 흡모하며 우러르는 사람들은 행성의 그 어더에서나 찾을수 있다.

주석은 인민으로 천하를 움직이신 위인,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시다

고 칭송하였다.

브라질공산당은 4월 14일 인터넷홈페이지 『베르펠우』에 『김일성동지의 환생일을 기념하고 있는 조선인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본사기자

그이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숭고한 풍모를 지니신 것이다. 그이께서는 많은 나라 및 국가수반들과 명망높은 인사들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까지 허물없이 만나 주시였다.

세계인민들은 그이를 끌어모아고 있다.

역사는 김일성주석과 같은 타월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이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이념원이다. 우리는 주석께서

생각과 함께 같은 지향이념원이다. 그이의 혁명업적을 극복나갈 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짐장속에 영생하실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근로자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

— 말레이시아수상 다크 스리모하마드 나지브 빈 푸른 하지 아브둘 라자크가 4월 30일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성과로 기초한 조선혁명의 주체적 성과로 조선인민에게 인정해 주었다.

글은 우리 인민이 짧은 기간에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공업화의 혁신적 성과를 인정해 주었다.

글은 김일성주석의 인간사랑의 세계는 국가를 초월하였다. 그이를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태양으로 흡모하며 우러르는 사람들은 행성의 그 어더에서나 찾을수 있다.

주석은 인민으로 천하를 움직이신 위인,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시다

고 칭송하였다.

양풀라인민해방운동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인 일자리 조성정책을 실시해나갈것이라고 서한은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 끌어내고는 미국기발을 끌어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있는 이란인민들

집을